# 여성 친화 도시 완도 만들기, 군민과 함께 '온 힘'

## 중장기 전략 수립, 민관 협력, 군민 참여단 운영 등 로드맵 가동

완도군이 여성가족부의 '여성 친화 도시'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군은 그간 여성·가족 정책을 추진하며 일자리 확대, 돌봄 및 안전 강화, 성평등 문화 조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여성 친화 도시'라는 명칭 획득을 넘어 군민과 함께 정책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민관 협력 체계 구축, 현장 중심의 과제 도출, 군민 참여단 운영 등 로드맵을 가동 중이다.

최근 「여성 친화 도시 조성 5개년('26~'30)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5대 목표와 전략 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가족 친화적 돌봄 환경 조성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성인지 정책 기반 강화 ▲지역 공동체 회복력 제고 등으로 부서별로 실행력을 높이는 중이다.

여성일자리협의체와 여성안전실무협의체 등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공동 설계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 일자리 분야는 도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무 교육, 경력 단절 여성 창업·취업 지원, 안전 분야는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CCTV 확대, 안전시설 관리,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여성 친화 도시 과제 발굴 원탁 회의'를 개최해 관계 기관, 공무원, 주민 등 80여 명과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돌봄 환경 개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성평등 정책 발굴 등 정책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여성 친화 도시 군민 참여단'을 통해 군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생활 속 불편 사항 개선, 성평등 홍보, 공공시설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며 정책 공동 설계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해 성차별 인식 개선과 건강한 가치관을 확산시켰다.

신우철 군수는 "여성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여성 친화 도시 완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 보성군, '보성녹차' 군수가 품질 보증한다!

### 군수품질인증 평가 통해 명품 보성녹차 소비자 신뢰 확보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19일 봇재(봇재홀)에서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품평 전문가인 9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차의 외형, 찻물의 색, 향, 맛, 우려낸 잎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오감(五感) 관능 평가를 실시했다.

심의 결과, 보성군 차 제조가공업체 24개소에서 출품한 25개 제품 중 21개 업체 22개 제품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획득해 군수품질인증을 교부받았다.

'군수품질인증제'는 올해로 시행 17년째를 맞이했으며, 보성에서 생산된 녹차만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을 통과한 제품은 군수 품질인증 상표가 부착되며, 이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명품 보성녹차를 선택할 수 있는 신뢰의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보성녹차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서형빈 부군수는 "명품 보성녹차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길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후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 곡성군, 블루베리 기초 영농기술 교육 개강

### 신규 농업인 대상…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 기반 강화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기초 재배 기술과 농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블루베리 기초 영농기술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전했다.

교육은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오는 9월 16일까지 총 5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초보 농업인과 재배 예정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장소는 곡성군농업기술센터와 선도 농가 포장이다.

첫 교육은 8월 19일(화) 오후 2시, 곡성군농업기술센터 대청마당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에는 57명의 교육생이 참석했으며, 김신중 블루베리 농업마이스터가 강사로 나섰다. 강의 주제는 블루베리 산업 동향, 과원 조성 방법, 품종 특성 등으로, 재배 기술 전반을 다뤘다. 교육생들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블루베리 재배에 대한 이해를 깊이 넓힐 수 있었다.

블루베리에 관심은 있었으나 영농 진입이 어려웠던 농업인, 또는 재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농업인에게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교육은 농가의 재배 역량 강화와 시기적절한 기술 지원 측면에서도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곡성군은 119 농가, 38.5ha(시설 21ha, 노지 17.5ha) 규모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 2025년 출하 규모는 280톤, 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공선출하회에는 43 농가, 16.4ha가 참여하고 있다. 2017년 20ha·26억 원에서 출발해 2024년에는 38.5ha·61억 원까지 성장하는 등 재배 면적과 생산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군은 올해도 블루베리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7억 5천만 원 규모의 품질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배 여건을 개선하고 고품질 생산을 도모한다. 또한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연 7회 운영하여 농업인에게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곡성군은 기초 교육부터 품질 향상 지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이 신규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곡성군이 고품질 블루베리 재배 산지로 확고히 입지를 다져 가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 순천시, '2025년 웰니스 노르딕 워킹 대회' 참여자 모집

### 전 국민 선착순 500명 모집! 지금, 당신의 한 걸음을 더하세요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9월 27일에 개최되는 2025년 웰니스 노르딕 워킹 대회 참여자 500명을 오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3주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오천그린광장에서 출발해 초가을의 정취가 깃든 국가하천 동천을 따라 걸으며, 생태수도 일류순천의 자연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약 6km 코스로 운영할 예정이다.

노르딕 워킹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9월 17일까지 순천시 홈페이지와 SNS(블로그·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를 통해 네이버폼(QR코드 또는 링크)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유럽에서 시작해 우리나라에도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확산된 노르딕 워킹(북유럽식 걷기)은 폴(스틱)을 활용하여 상·하체를 동시에 움직이므로 신체 균형을 개선하고 관절에 무리를 덜 주는 효과가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시는 2024년부터 전국 웰니스 노르딕 워킹 대회를 3회째 운영하고 있으며, 완주자에게는 완주 기념품 제공과 한방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순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열리는 이번 웰니스 노르딕 워킹 대회가 걷는 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건강한 걷기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 고흥군, 고흥몰 입점업체 대상 세무·정산교육 실시

### 고흥몰·입점업체 업무처리 효율 증대로 소득향상 기여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9일 종합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 입점 업체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정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처리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고흥몰 정산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산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진행됐으며, 관내 농가와 가공업체, 농업법인이 참석했다.

특히, 세무회계 전문가를 초빙해 부가가치세 기본 설명, 과세와 면세의 기본 개념, 홈택스 계산서 신고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고흥몰 입점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됐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흥몰과 입점 업체 간 업무처리 능력이 향상되고, 고흥몰의 성장과 입점 업체 소득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점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9월부터 운영된 '고흥몰'은 매년 다양한 할인 행사를 통해 현재까지 약 91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올해는 공격적인 판촉 활동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통해 누적 매출 100억 원 돌파가 기대된다.

고흥/박도일 기자

## 나주시, 호우피해 복구 '자체설계단' 가동

### 복구 골든타임 확보…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공공시설물 피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자체설계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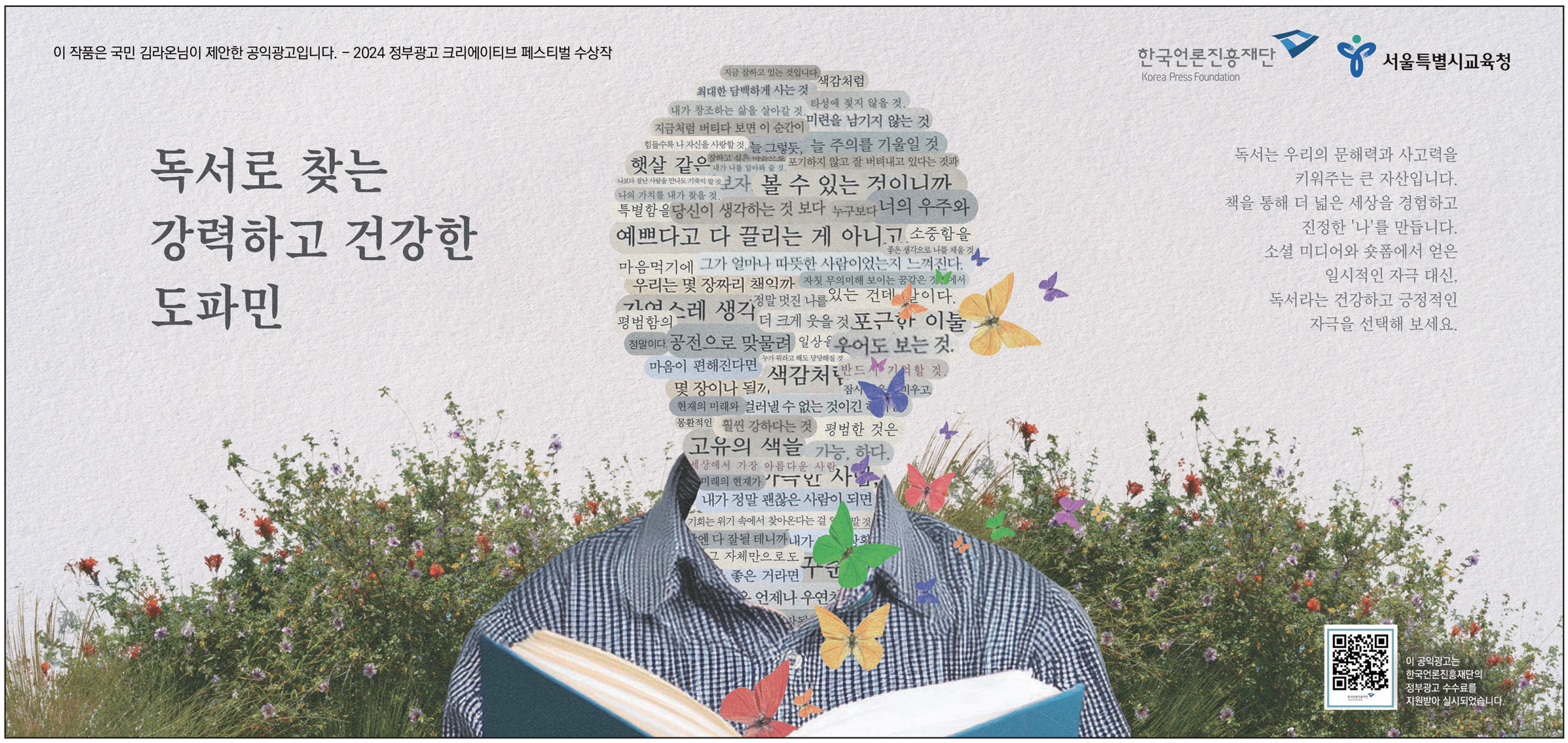
피해 현장 조사부터 설계, 발주까지 전 과정을 시가 직접 수행해 복구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약 108건, 22억 3천만 원 규모의 공공시설물 피해(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소하천 정비 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자체설계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설계단은 피해 조사, 측량, 실시설계 등 복구 전 과정을 시청 건설과, 안전재난과 등 관련 부서와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 30여 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 주민과 주민대표의 의견을 현장 조사 단계부터 반영해 실질적인 복구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설계 및 발주 절차를 절반 이하로 단축하고 측량과 설계 용역 비용 약 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자체설계단 운영으로 복구 골든타임을 확보해 공공시설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피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재난 발생 시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